



제주작가들의 시대를 이은 '같은 꿈'

기당미술관 신소장품전 '기당컬렉션:조화' 진행
최근 3년간 수집한 작품 24점 선봬… 3월 26일까지



홍성석 작 '근원 9401'

기당미술관이 '새 얼굴들'을 선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기증, 구매, 관리전환을 통해 수집한 작품들로, 신소장품전 '기당컬렉션:조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내보이고 있다.

'조화'란 주제를 달았듯 이번 전시에선 신·구의 조화가 돋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제주미술의 오랜 작업부터 최신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하다.

전시장엔 고(故) 양창보·김택

화·홍성석 작가를 비롯 중견작가 고영우·이명복·김용주, 그리고 청년작가 강문석·강태환·박정근·김선일 등 주제에 맞춘 작가들의 작품 총 24점이 내걸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의 제주작가들의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미술관은 도의 소장자 이충열 씨의 제주출신 故 홍성석(1960~2014) 작가 기증작품을 눈여겨볼 점으로 꼽았다.

이들의 작품 속에는 제주의 다양한 풍경과 상황들, 인물묘사뿐 아닌 작가 개인의 관심사들이 작가별 다른 감성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간다.

미술관은 "예전 왕성하게 작업했

던 작가와 지금의 청년작가, 이전 유행했던 주제 및 기법과 지금의 창작방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당 컬렉션을 완성해감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새로운 미술품들이 미술관에 들어오게 됐다. 시대와 작가의 변화상을 대변하는 작품들은 기당의 얼굴이 될 것"이라며 "작품을 통해 다른 뜻, 같은 꿈을 품었던 제주작가들의 그 시절과 장소, 마음속으로 잠시 감정이 입해 작품을 관람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술관 기획전 시설을 채운 전시작은 오는 3월 26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ihalla.com



덕수리불미공예 시연 모습.

제주도청 제공

덕수리불미공예 전승 맥 잇는다

도, 보유단체로 덕수리마을회 인정 고시
보유자 공석 6년 만에 전승 주축 채워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덕수리불미공예의 전승 주축이 채워지면서 전승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덕수리불미공예의 보유단체로 덕수리마을회를 인정 고시했다.

불미(풀무)와 흙 거푸집을 이용해 무쇠로 솔, 보습과 같은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제주 전통 기술인 덕수리불미공예는 당초 개인종목으로 지정됐지만 2019년 집단에 의해 기능이 실현되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체종목으로 전환됐다.

2017년 윤문수 전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전승의 중심체인 보유자(보유단체)가 공석이었는데, 6년 만에 채워진 것이다. 덕수리는 전통적으로 무쇠로 만든 생활필수품을 생산해온 주된 마

을로, 주민들은 마을의 유산인 덕수리불미공예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높다.

마을은 1991년부터 매년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 행사를 열어 덕수리불미공예를 시연하고 있으며 정기 전수교육, 불미공예를 활용한 '솔굽는 역사' 공연 등 종목을 전승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도는 심사과정에서 덕수리마을회가 전승에 필요한 기량, 기반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전승에 참여하는 주된 구성원이 젊고 전승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덕수리불미공예 보유단체가 인정되면서 현재 보유자 및 단체가 부재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은 23개 가운데 3개다.

오은지기자 ejo@ihalla.com

제주시 올해의 책은?

우당도서관 시민 투표 진행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제주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는 '2023 제주시 올해의 책' 시민 투표를 3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제주시 올해의 책은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성인, 제주문학, 청소년, 어린이 분야를 구분해 각 부문별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앞서 올해의 책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부문별 5권씩 총 20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은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23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다.

제주시 올해의 책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개인용품을 구비 전시 판매하며 필요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올해의 책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개인용품을 구비 전시 판매하며 필요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광미술관' 건립 숨고르기 돌입

제주도, 을 상반기 문체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안해
미흡한 부분 보완 하반기 재추진 계획… 공감대 형성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지구 내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중광미술관 건립'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두 번 연속 '부적정' 결과로 문체부

을 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올 상반기 아님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사전평가 신청 재추진에 앞

서 올 상반기 내 중광스님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연구 자료 미흡 등에 대한 보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학술대회(오는 3월 예정)를 비롯 작품 연구 및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올 상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신청서 제출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지만, 도는

신청하지 않았다. 사전평가에서 3회 연속 탈락되면 이후 1회 신청 기회가 박탈되는데, 그럴 경우 건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는 앞서 사전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 하반기(7월 말까지 신청)에 다시 도전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하반기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도가 당초 목표했던 2025년 상반기 개관 계획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은지기자

제주갤러리 '두 시선'… 양묵과 그룹 공

제주의 양묵 작가와 '그룹 공(空)'의 작품이 서울에서 선보여지고 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내 위치한 제주갤러리가 제주지역 작가의 작업을 병치해 선보이는 '두 시선 Two Perspectives' 전을 통해서다.

양묵 작가는 'History… Self-Existence: 역사… 자기존재-저항하는 실존에 관하여-'란 이름을 달고 아연판을 매체로 해 작업한 이전 작품 8점을和平회화로 회귀해 오일 페인팅으로 작업한 최근작 18점을 내걸었다. 양 작가는 자신의 책 그림이 묘사의 대상이 아닌 '인

식의 대상'으로 읽히기를 바란다. 그가 창안한 화면은 완성도 있게 그려진 '책'이라는 오브제에 작가의 치밀한 설계에 따라 해체된 텍스트들의 잔해로 형성된다.

'그룹 공(空)'은 강은정, 김소라, 이하늘 등 세 명의 제주 여성작가로 구성됐다. '서로 비어 있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자'라는 의미로 지난해 결성돼 멜론도 뮤지엄에서 첫 기획전을 연 바 있다. '空+共'이란 이름을 붙인 이번 전시는 그들의 두 번째 기획전이다.

일상의 부재와 고립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空+共(공+공)'은 공존



▲ 김소라 작 'Hug Me'
◆ 양묵 작 'History... Self-Existence.No18'

(共存)이라는 주제로서 예술적, 문화적 공허를 메우고자 한다. 강은정 작가는 옛것과 현대의 공존을, 김소라 작가는 인간관계의 공존을,

이하늘 작가는 자연과 일상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두 시선' 전은 이달 13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전통의 산호당구재료상사

오랜 세월 제주에서 당구 용품을 공급하며 당구장 업주 여러분과 당구 동호인과 함께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렴하고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구장 업소 전품목을 인터넷 가격이하 판매 다양한 개인용품을 구비 전시 판매하며 필요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 한발큐 · 빌킹큐
고리나큐 · 은성 큐 · 코리아큐
기타 제품 및 수입 용품

큐 수리 공방 운영

상·하대 비란스, 선골수리, 텁 부착 및 기타
경력의 기사가 상주 하여 당구대 작업을 합니다

개인 용품

개인용 텁(쿠드롱 킹블랙 앙크 고리나 산체스 한발 애이블 아우라 에디엑스 야마토 몰리나리 잔털 후지 까뮤이 등)
개인 초크(고리나 DS 아우라 명품 아라미스 프레데트 블루미운틴 킹다이아몬드 프로페셔널 등)
장갑(김치 쿠드롱 한발 아우라 고리나 최성원 명품 등)
기타 그림 출판 초크케이스 등 다양한 개인용품 구비 판매



산호당구재료상사

T.757-5710

신설 · 매매 · 개인용품 · 큐수리

한국선물

각종에 및 트로피
단체 용품
행사 용품



산호당구재료상사 대표 고재철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TEL. (064) 757-5710, 5488 H.P. 010-3699-3967